

KIA 고종욱·남하준 내달 7일 나란히 결혼

고종욱, 승무원 서너름씨와 웨딩마치 · 남하준, 치어리더 이이슬씨와 화촉



KIA 타이거즈 고종욱과 예비신부 서너름씨(왼쪽), 남하준과 예비신부 이이슬씨.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외야수 고종욱(33)과 투수 남하준(26)이 나란히 다음달 7일 결혼식을 올린다. KIA에 따르면 고종욱은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더라운지에서 신부 서너름씨와 웨딩마치를 올린 /뉴시스

다. 고종욱은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서너름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고종욱은 “아내가 그동안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덕분에 큰 힘이 됐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를 위해 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종욱-서너름 커플은 내년 시즌이 끝나면 이탈리아 로마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남하준은 오는 1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위더스웨딩홀 1층 메리얼홀에서 신부 이이슬(24)씨와 화촉을 밝힌다. 남하준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KIA 응원단에서 치어리더로 활약한 이이슬씨와 친한 친구로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다. 남하준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아내에게 고맙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전했다. 고종욱과 남하준은 모두 광주광역시에 신집 살림을 차린다. /뉴시스



'상금 기부' 이정후,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모임 가입
KBO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이정후(키움 히어로즈)가 장애인을 돕는 푸르메재단의 고액기부자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푸르메재단은 26일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이정후가 2500만원을 기부하고, 1억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더미라클스’의 38번째 회원이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K리그1 승격 광주, 공격수 신창무 영입 스피드·드리블 뛰어난 원발테크니션



프로축구 K리그1(1부)에 승격한 광주FC가 공격수 신창무를 영입했다. 광주는 26일 강원FC에서 공격수 신창무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170cm 70kg으로 날렵한 체격의 신창무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과 개인기, 정확한 크로스가 강점인 측면 공격수다. 날카로운 원발 킥으로 세트피스를 전담했고, 중앙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 수비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자. 우석대를 거쳐 2014시즌 대구FC 유니폼을 입은 신창무는 프로 첫해 1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했다. 2016시즌에는 주전으로 나서 K리그1 승격에 힘을 보였고, 2019년 군 제대(상주 상무) 후, 팀의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에 기여했다. 2021시즌 강원엔 합류해 2년 동안 K리그1 잔류와 파이널A 확정에 일조했다. K리그 통산 기록은 163경기 7골 5도움이다. 신창무는 “K리그2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기에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베테랑답게 팀에 헌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일상 기자

순천시체육회장 이상대 재선 성공

“풍요롭고 성장하는 체육회로 이끌어가겠다” 다짐



민선 2기 순천시체육회장으로 이상대 현 회장이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했다. 이상대 회장은 선거인 188명 중 155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난 22일 선거에서 120표(77.41%)를 획득해 35표를 얻은 김유승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현 회장에 맞서 젊은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어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다는 분

석에 지배적이다. 또한 최근 순천시 체육회에 대한 순천시의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진 직후,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체육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재선에 성공한 이상대 회장은 “다시 한 번 저에게 순천시 체육의 지평을 열어 갈 기회를 주신 5만 순천시체육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살려서 민선 2기 순천시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괄목할 성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순천시 체육인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과 순천시 체육의 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풍요롭고 성장하는 순천시체육회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을 전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민선 2기 광양시체육회장 김용서 당선

내년 2월 정기총회일부터 임기 시작...“체육환경 개선”



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김용서 당선인은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광양시, 광양시의회의 의원들과 체육회를 중심으로 종목단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을 한군데에서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밀그림을 그리는 시발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악한 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내 기업체와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협약을 추진해 1기업-1종목으로 매칭, 기업체의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과 체육인들이 협력해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023년 2월 정기총회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4년간 광양시체육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건강의섬 완도

청정완도로 전복

먹으러 갈래?

완도군수 완도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완도소안수협 조합장 장명순 한국분체완도 광업소 소장 외 임직원 일동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재선
금일수협 임직원 일동 노화원다FRP조선소 대표 김원범

완도군청 전복 홍보대사 영탁